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광주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제1804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4월 30일 (음력 3월 25일) 수요일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대운하와 분리해 추진"

추부길 靑비서관 "광주천, 세느강처럼 조성"

청와대가 호남운하를 대운하 사업과 분리,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광주천도 프랑스의 세느강처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또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호남운하를 대운하 개념이 아닌 역사성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호남운하 건설 계획을 친환경을 토대로 한 관광·레저 중심의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청와대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여부를 떠나 강이 오염된 만큼 손을 한번 대야 한다"며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도 대운하 건설 계획과 분리, 이 같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비서관은 또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도 단지 영산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류인 광주천을 세느강처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남운하 명칭 논란에 대해 추 비서관은 "실용의 시대에 명칭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호남운하는 과거 영산강의 뱃길과 수로 복원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실상 운하라고 볼 수도 없으며 물류도 본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환경 논란에 대해서도 "호남운하 및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의 핵심은 친환경적 건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고 지원 여부와 관련, "민자가 투입된다 해도 정부의 지원 및 개입이 뒤따르므로 민자 대 국고 지원 비율은 50 대 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비서관은 호남운하를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대운하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운하 건설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영산강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며 친환경적인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뱃길 복원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운하를 추진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청와대가 물류 중심의 호남운하 건설 계획을 수정,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레저 중심의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미래 비전과 맞물리고 있는데다 지역 정치권도 호남 운하가 아닌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는 찬성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3 U대회 광주로' 실사 D-1

2013 하계 U대회 실사를 이틀 앞둔 29일 광주시 광송간 도로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깃발을 비롯해 실사단 출신 6개 국가의 국기가 내걸려 환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민 열정·열기로 실사단에 감동을

입국에서 출국까지 국빈급 예우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의 최대 관문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현지 실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스테판 버그 스웨덴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실사단은 1일 오후 입국, 5일까지 광주가 대회를 치를 능력이 있는지, 시민들의 유치 열기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에 들어간다. 지역경제·관광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 국제도시 도약을 위해 U대회 유치에 올인해온 광주시는 30일 박광태 시장의 최종 현장 점검을 끝으로 손님맞이 채비를 마무리한다.

〈관련기사 3면〉

◇국빈급 손님맞이 준비=시는 실사단이 입국하는 순간부터 출국 때까지 국빈에 준하는 예우와 의전을 펼치기로 하고 출입국 수속과 레드 카펫 영접, 경찰 에스코트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실사 준비의 '컨트롤 타워'인 광주시 종합지원단(단장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주부터 경기장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 행사장 등 이동로를 세밀히 점검하며 매일 보고회를 가졌다. 광주 5개 자치구를 비롯 대학, 교육청, 경찰청, 시체육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관기관지원단도 28일 대책회의를 갖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실사단 환영행사는 광주지역 16개 대학 총장단과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체육계, 여성계 인사 33명으로 구성된 '시민환영위원회'(위원장 전호종 조선대 총장)가 주도한다. 환영위는 1일 실사단의 첫 만찬을 주재, U대회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전달한다.

◇표심잡기 4중 교차점검=박광태 광주시장과 유치위는 지난 2월 유치신청서 제출 직후부터 투표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10여개국을 돌며 체육계 인사들을 만나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지지를 요청해왔다. 해외 유치활동은 광주시와 유치위, 외교부, 체육계 인사들이 번갈아 각 국을 돌며 표심을 4중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촘촘히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과 유치위는 U대회 광주 유치 가능성이 일단 '5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소연씨 부상 예상보다 심각

의료원 입원 … 외부 활동 여부 오늘 결정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사진)씨가 착륙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통증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9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우주임무 보고와 청와대 방문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충북 청원군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이하 항의원)에 입원, 정밀 의학검사를 받았다.

이씨의 주치의로 러시아에도 동행했던 정기영 항의원장은 "이 박사가 현재 표정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등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며 "검사 결과를 보고 입원 여부와 향후 치료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항의원에 도착해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을 통해 통증이 있는 허리와 목 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항의원측은 전했다. 또 전반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간단한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0일 항의원측의 진단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씨의 현재 몸 상태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한 일간지에서 보도한 이소연씨의 장기 입원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병원 치료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30일 의사의 소견을 듣고 이씨의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일 러시아 소유즈 TMA-11호를 타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늦추는 역추진 로켓이 작동하지 않아 착륙 당시 위험한 상황이 빚어졌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지자체·시민단체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화하자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새 정부의 지역 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지사들은 오는 5월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회의 때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본격 제기할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들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개최, 현 정권의 지방홀대 정책을 강력 규탄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도 30일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 반 지방정책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병록 광주시기획관리실장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일전문대 창립 55년 역사의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